오큘러스, 주력상품 100달러 인하에 저가형 발표로 대중화 주도

박상범 /2017-10-12 12:58:30

VR 디바이스 개발사 오큘러스가 주력 상품인 '오큘러스 리프트'의 가격 인하는 물론 저렴한 가격의 독립형 VR HMD(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오큘러스 GO'를 공개, VR 대중화를 선언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오큘러스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산호세에서 개최한 오큘러스 개발자 컨퍼런스인 '오큘러스 커넥트 4'를 통해 새로운 VR 기기인 독립형 VR HMD '오큘러스 GO'를 발표했다. 오큘러스 GO는 PC나 스마트폰이 필요 없이 기기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기기로 2540X1440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갖추고 있다. 그 외의 사양은 삼성 기어 VR과 같다. 기어 VR의 앱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어 VR은 반드시 삼성 스마트폰을 필요로 했지만 오큘러스 GO는 스마트폰이나 그 외의 연결이 필요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가격도 다른 기기보다 저렴한 199달러(한화 약 22만5천원)로 책정됐다. 오는 11월부터 개발킷이 제공될 예정이며 출시 시기는 내년으로 발표됐다. 다만 구체적인 성능이나 이용 가능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이 행사에서 오큘러스는 기존에 판매되던 주력 상품인 '오큘러스 리프트'의 가격을 499불에서 399불로 영구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큘러스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기들을 통해 VR 대중화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평가다.

http://www.betanews.net